

대학은 인간화 교육에 더욱 힘쓸 때다



신철순
전북대 총장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인류는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첨단 과학의 위력이 인간의 삶의 양식과 질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학문적 패러다임 추구와 제도 혁신이 과감하게 시도되고 있다.

많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전환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인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기주의, 도덕성 붕괴, 생명 경시와 같은 비인간화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과학이 가져올 삶의 질적 변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전체 인류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 독일 사회학자 Ulrich Beck의 말을 빌리면 - 부의 축적만을 추구한 20세기 중반까지의 단순한 근대화 시기를 지나 지금은 탈도덕적 위기 상황에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반성적 현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성적'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는 지난날 이룩한 과학 발전과 산업혁명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인간적 진보를 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첨단과학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줄 최상의 등불은 대학이다. 대학은 현대사회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 것이며, 그 변화의 의미를 찾아 인간적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대학은 성립 초기부터 인류가 해결하고자 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즉 고된 노동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무서운 병마로부터의 해방, 의식주 문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억압과 불평등한 삶의 조건의 개혁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인류를 위

해 봉사하였다.

돌이켜보면, 대학은 중세 후기 신(神)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새로운 고등 지식의 탐구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 중세의 종교적 맹신과 도그마에 대항하는 혁신적이고 비판적인 새로운 지적 탐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학은 신중심의 문화적 관습과 전통 혹은 종교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인간 이성의 힘을 키워 새로운 시민사회를 창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 이래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생산하고 전수하였다. 이후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인간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고등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지적 문화에의 공헌으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지식혁명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대학은 과학주의의 절대적 신뢰 속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분배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지식과 정보의 수용 능력과 창조 능력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다. 대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월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학에서 인간적 가치보다는 지식의 이용 가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자칫 교육의 파행성을 초래할 위험이 없지 않다.

문제는 지식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식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인문학적 성격이 퇴조하고 기술사회의 발전 이념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과 이론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가치 판단을 수반해야 한다. 대학은 급속한 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의 힘을 통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철학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세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과학의 위력에 적응하는 차원에서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지식 생산 및 전달에만 관심을 집중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세기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인간적 진보를 위한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은 윤리적 통제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치 중립적인 지식과 정보를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재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치유하여 보다 인간적인 시대로의 진보를 추구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점에서 대학이 필연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보는 물질적 번영으로 등식화되었다. 대학이 아무리 인간주의 실현을 외쳐대도 그 결과는 물질적 번영에 기여했느냐 못했느냐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의 진보는 정신적 번영, 혹은 영성의 풍요로움일 수밖에 없다. 오웬 페프케(Owen Paepke)는 물질적 진보의 종말과 인간의 특성과 능력을 변화시키면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진보의 원동력이 인류의 역사를 가늠하는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진보의 주체는 지식의 무분별한 소유를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는 지식인이 아니다. 새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인간적 진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협동의 정신을 가진 자이며, 삶의 깊은 체험을 통해 공존공영하는 정신으로 학문하는 자이다.

대학의 일차적인 과제는 이런 인재를 키우는 일일 것이다. 대학의 사명은 더 이상 불가치적인 고등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있지 않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대학의 존재 의의는 더 나은 진보를 주도하는 '인간주의적' 지성인 양성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4**